



앞치마는 내 일을
쓸모 있게 합니다

TOGETHER⁺

함께

Vol.23 2017 AUTUMN

COVER STORY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공간에 나무 특유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공방 안에서는 작업자가 앞치마를 입고 신중하게 반려동물용 위한 가구 제작에 한창입니다. 끈이어 푹푹푹 작업자의 손을 거쳐 실용적인 반려동물 물건이 완성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공예전문가이자 쓸모연구소 대표인 유라님이 이번호의 주인공입니다.



버려진 자재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공방들이 있는 곳

태릉입구역에서 내려 조금 걷다보면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곳에 생활창작 공간이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로 빼곡한 창작공간은 여러 공간들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룹니다. 주절주절 산문처럼 읊지 않아도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낄 즈음, 망치로 똑딱 거리는 소리와 드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앞치마를 입은 작업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버려진 가구나 목재 등을 재활용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위해 앞치마는 공예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이지요. “목공과 페인팅을 하다 보면 모든 옷이 작업복이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튀는 목재 잔해물을 막아주는 안전 용도이자, 주머니에 자나 연필 등을 넣어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만능 옷이지요.” 이곳에 있는 공예가들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알.쓸.참.코

(알고보면 쓸모있는 참여 코너)

후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호부터 <알.쓸.참.코>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시고 소식을 꼼꼼히 정독해주세요. 소식지 안에 참여미션이 들어있습니다.

미션 ① '내.편' 잡(Job) Go!

23호에 실린 '내일에서 on 편지' 키트를 모두 찾아주세요. 키트를 찾으신 분들은 소식지에 동그라미 표시하셔서 사진으로 찍어 하단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몇 개의 키트가 실렸는지 표시해서 보내주세요. 힌트 : '내일에서 on 편지' 인터뷰 내용 참조

미션 ② 소식지에 실린 장소에 내가 등장! 이거, 실화냐?

23호에 실린 장소를 방문하셨다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코멘트를 적어 하단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예 : 23호에 소개된 '쓸모연구소'에 다녀왔어요. 생활창작 공간을 가족들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 독자참여 방법 *

미션들을 읽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메일 (shmin2016@hamkke.org)로 성함, 전화번호와 함께 전송해주세요. 총 20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매를 발송해 드립니다. 소식지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다음 호 <독자후기>란에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CONTENTS



함께하는 일의 재미

- 04 > 특집 기획
후원을 통한 나눔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함께하는 일의 의미

- 06 > 현장 속으로 1
제1회 IT's 챌린지 대회
- 09 > 현장 이슈
'Smile Together Partnership(STP)' 임팩트리포트 발간 추진
- 10 > 현장 속으로 2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을 통해 본 줌 인(Zoom in) 네팔(Nepal)

함께하는 일의 흥미

- 12 > 일하는 물
에이프런 잡스(Apron jobs)를 소개합니다~

내일에서 on 편지

- 14 > 인터뷰
응답하라 1990! 나눔 동창회를 열다

재단소식

- 18 > 재단 동향 및 이슈



미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25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Vol.23 2017 AUTUMN

발행인 송원주 | 발행일 2017년 8월 31일 |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주소 (03992)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 대표전화 02-338-0019

홈페이지 http://www.hamkke.org

기획·편집 (재)함께일하는재단 |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후원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513-196182-13-105 / 국민은행 032901-04-181772
농협 301-0011-3418-11 / 신한은행 140-008-341200

● 'TOGETHER' 함께,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7년 동안의 나눔에 이어 아들의 재능기부까지

후원을 통한 나눔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재단은 전화모금을 통해 신규 개인 기부자를 발굴하고 기존에 재단을 후원해주고 계시는 후원자들에게 재단의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자 전화모금 캠페인을 7월 초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전화모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재단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후원 재가입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기꺼이 증액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명의 개인 후원자가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재단 모금 증액에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 현재 법률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고 대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윤명숙 후원자님의 나눔 사연을 소개합니다.

인터뷰 | 경영기획팀 송원규 책임매니저 정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우리나라 청년들을 비롯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은 돈이지만 증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해온 재단과의 인연과 후원

저는 함께일하는재단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로 현재 법률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재단 후원은 2011년부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고 있는 후원금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저를 대신해 사회에 좋은 일을 해주고 계신다는 점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발송되는 소식지에 제 이야기가 실린다고 생각하니 무척 영광입니다. 재단에서 전화모금 문의를 주셨을 때 흔쾌히 증액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청년들 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신문과 뉴스에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기성세대로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재단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비롯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은 돈이지만 증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응원과 나눔에 대한 생각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경험을 충분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쌓고 견디다보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날이 꼭 오리라 봅니다.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내면의 소리를 진심으로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면 자신이 선택한 인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저희 아들은 현재 좋은 기회가 생겨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메신저 서비스로 무료 전화 통화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wi**



후원금은 이런 곳에 써주세요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분기별 소식지로 접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낸 후원금이 그런 사업에 쓰인다면 무척 부듯할 것 같습니다.

※ 주변에 어려운 형편으로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나 청년들이 있으면 **함께일하는재단(02-330-0744)**으로 연락주세요. 사연을 받아 윤명숙 후원자님의 자녀분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교생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1회 IT's 챌린지 대회

팀별로 옹기종기 둘러앉은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를 진행합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IT를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씩 접근해 나갑니다. 융합형 IT 인재육성을 위해 기획된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무박 2일에 걸쳐 나온 아이디어 회의를 바탕으로 직접 샘플을 제작하여 시연하고 발표를 진행합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모습과 포부가 대단합니다. 이 현장은 바로 신세계아이앤씨와 함께일하는재단이 특성화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IT's 챌린지 대회'입니다. 그 열띤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글/정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융합형 IT 인재육성을 위한 캠프

'제1회 IT's 챌린지 대회'가 6월 23일, 24일 양일 간 마포아트센터와 서강대학교 마테오관에서 열렸습니다. 신세계아이앤씨가 주관하고 함께일하는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IT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가, IT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캠프입니다. 'IT기술로 안전, 환경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제로 본선 진출 사전심사에 총 25개 팀이 지원을 했고 창의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신뢰성 항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15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은 직접 시제품을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만든 제품들을 발표하며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신세계아이앤씨 손정현 상무는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년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커톤대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개발자와 실리콘밸리에 관해 잘 알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

면서 이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회 축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아이디어 및 기술에 도움을 주는 현장 멘토단

IT's 챌린지 대회에서 입상한 4개 팀에는 IT를 활용한 시제품을 끝까지 지원해 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총 1,2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총 7개 기관의 멘토들이 동아리를 2팀씩 담당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다른 IT경진대회와의 차이점입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자전거 안전거리 유지용 브레이크 자동제어 시스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드론, 물벼룩배양 키트를 제작해 녹조문제 해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표됐습니다.

선린인터넷고 NEFUS는 낙상예방 걸음걸이 분석 발찌로 대상을,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우노는 자동브레이크 제어시스템으로 최우수상, 미림여자정보과학고 JS스터디는 층간소음 해결 경고음 '아이낙(eye knock)'을, 서울디지털고 Magic은 길을 걸으며 안전하게 이어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앱 개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wi](#)

MINI-COMMENT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MAYBE 담당-리베라비 원영오 멘토) '기술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대회'라는 점이 저를 여기로 이끈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인데도 열정이 대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흥미를 갖고 공부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제가 오히려 어린 친구들에게 더 많은 부분을 배워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 훌륭한 IT 전문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신세계아이앤씨 지원담당 CSR팀 황선명 매니저) 저희 회사는 요즘 가장 핫한 IT회사로, IT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자 함께일하는재단과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해커톤 대회를 통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회 IT's 챌린지 대회 우승 아이템 소개



에디슨상(대상)_선린인터넷고 NEFUS

아이템 : 노인낙상예방키트

어르신 낙상예방을 감지하고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발찌예요. 발찌 안에 위험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자이로 센서의 데이터 값을 수시로 받아 서버에 넘겨주게 돼요. 낙상감지 알고리즘을 통해 위험증상이 발생하면 데이터를 펌웨어에 넘겨주고 병원에 신고하는 시스템이에요.



빌게이츠상(최우수상)_한국디지털미디어고 우노

아이템 : 안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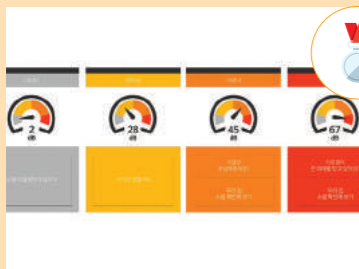
자전거 안전거리 유지를 위한 자동브레이크 제어시스템이에요. 자전거 앞에 안전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일정거리 안에 장애물이 인지되면 안전거치대가 자동으로 내려오면서 사고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스티브잡스상(우수상)_서울디지털고 Magic

아이템 : 길거리위험요소확인 이어폰

길에서 안전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앱이에요. 주변의 소리를 분석하여 소리인식에 성공하면 앱에서 소음인지, 안전에 관한 소리인지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듣는 각종 소음들을 사용자가 안전하게 차단시킬 수 있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걸어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스티브잡스상(우수상)_미림여자정보과학고 JS스터디

아이템 : 아이낙(소음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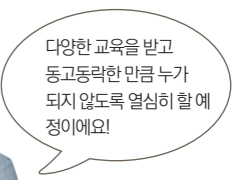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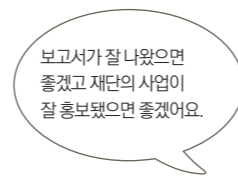
본인이 내고 있는 소음을 본인이 들을 수 있다면 순간 소음에 있어 좀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낙은 집 바닥에서 나타나는 진동의 크기를 측정해 모바일 앱으로 진동의 크기를 전송해요.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경고 메시지가 창에 뜨기 때문에 순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함께일하는재단 × 유넷

'Smile Together Partnership(STP)' 임팩트리포트 발간 추진

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기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아동빈곤근절사업으로 STP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과를 임팩트리포트 발간을 통해 널리 알리고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연세대 경영대학의 지원과 프로보노 연계를 통해 현장성 있는 임팩트리포트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진촬영, 인터뷰 스킬 등에 대한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STP사업 6개국 12개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임팩트리포트 발간 사업의 열정적인 강의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래요?

글/정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MINI-INTERVIEW

김경신 파울러스 대표

강사 이력

파울러스 글로벌 국제협력분야 영상전문가
2년 전 창업했고 해외개발 사업 현장에서 활동
기업 CSR 캠페인 NGO 개발영상 등 다수 활동
최근 미디어개발사업으로 영역 확장
희망TV SBS,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사업장 등 해외촬영 전문

Q_오늘 해주실 강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A 현지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지, 해외 빈곤 아이들을 윤리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줄 예정이에요. 사진 기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노출과 빛의 양을 잘 맞춰야 하고 구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사체 위치 선정을 잘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점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특히 피사체와의 현장감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어요.

Q_강의 내용을 통해 임팩트리포트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보고서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동시에 개발도상국 내지 재단의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잘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짐과 현장의 생생한 내용을 사진을 통해 후원자 분들에게 잘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신민수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

Q_임팩트리포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아이들과 관련한 사업이 많아 학회 동아리에서 참여하게 됐고 비영리 쪽 프로젝트는 처음이지만 후원의 전체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어요.

Q_임팩트리포트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저희 팀은 사전 설계한 STP임팩트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4주간 현지 사회적기업 방문 및 임팩트 조사 후 현지 STP 파트너 기관의 실제 사회적 임팩트를 알리는 일을 할 예정이에요.

Q_임팩트리포트를 통해 기대하는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A 그동안 이익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비영리쪽 프로젝트는 처음이에요. 더 넓은 범위에서 일하는 것에 성취감이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돼요.

Q_오늘 사진 수업은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나요?

A 제 인생에서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사진에 입체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장의 생생함도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Q_마지막으로 임팩트리포트 프로젝트에 임하는 포부를 말해주세요.

A 비영리 분야는 처음이지만 다양한 교육을 받고 동고동락한 만큼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을 통해 본 줌인 Zoom in 네팔 Nepal

함께일하는재단은 2011년부터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mile Together Partnership, 이하 STP)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아이들의 부모가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얻고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아이들을 가정 내에서 부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교육시기를 놓치고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아이들에게는 인성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와카미(과테말라), 스파우츠오브워터(우간다), 티모르게이터쿠키(동티모르), 엘다니핸드메이드카페(카자흐스탄), 익팅유기농장(필리핀), (주)트립티 네팔(네팔), 굿 핸즈 소셜엔터프라이즈(네팔), 해피팜(필리핀) 등 8개 기관을 지원하여 총 128명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었으며 1,864명의 부양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자바라(인도네시아), HRDF(인도), 더프라미스미안(미얀마), 고엘공동체(캄보디아), 락헤(베트남), 제리백(우간다)을 신규 파트너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STP사업 4기로 선정된 국가로 커피 로스팅 및 납품을 하는 (주)트립티 네팔, 굿 핸즈 소셜엔터프라이즈(지구촌공생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네팔 지역에서 활동하는 2개 기관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핸드메이드페어 현장에서 만난 STP 네팔 식구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인터뷰/정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국가	네팔(Nepal)
수도	카트만두
위치	중국과 인도 사이의 남부 아시아
언어	네팔어
면적	147,181km ² (세계 94위)
인구	약 29,033,914명(세계 46위)

SMILE TOGETHER PARTNERSHIP

트립티 김지혜 팀장

트립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산스크리트어로 '참 좋다'라는 뜻을 지닌 트립티는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시작했고 공정무역 카페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죠. 트립티는 한국에 지역별 체인을 가지고 있고, 네팔 트립티는 네팔 청년 자립을 목적으로 세웠어요. 또한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는 '꼬필라움'에 머물고 있는 여성청년들의 자활을 위해 봉제, 인형만들기 등 다양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있어요.

트립티의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트립티는 공정무역, 커피 로스팅, 카페 운영, 바리스타 교육, 소핑몰 운영, 공정여행, 청소년 직업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죠. 이런 활동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주민 센터를 운영하며 제3세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통해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과 함께하고 있어요.

핸드메이드페어 참여 배경과 상품이 궁금해요. 꼬필라움에서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인형은 나무톱밥을 문치거나 네팔에서 버려진 옥수수 껍질을 소재로 만들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물품 홍보를 위해 참여하게 됐어요. 인형들은 네팔의 전통적인 문양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우수한 네팔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관에서 판매한 수익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현재 네팔 청년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 국가GNP의 80%가 이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은 네팔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형판매 수익금은 그룹홈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희망을 함께해주세요.

굿 핸즈 소셜엔터프라이즈 Dawa Lama 회장

굿 핸즈 소셜엔터프라이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굿핸즈 네팔 NGO 프로그램인 재봉공동작업장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이에요. 기존의 봉제 공장과 달리 저소득 기혼 여성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데이케어센터 운영으로 재봉사 자녀들의 보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어요. 네팔 여성들이 사회적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네팔 여성들을 교육시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핸드메이드로 아이들 학교가방과 교복을 만들고 있어요. 만 원 정도면 아이들의 교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기업에는 수강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1년 동안 교육하면서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핸드메이드페어 참여 계기 및 얻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함께일하는재단의 지원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회적기업을 할 때부터 3년간 네팔 지구촌공생회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 재단의 STP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페어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STP 지원 사업은 2년차예요.

페어를 통해 얻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다른 부스를 보면서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다른 단체와 교류하며 한국 사업자들과 함께 연락하고 기술을 얻어가고자 해요. 디자인은 다양화하는 한편 공정이 적게 들어가 제작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파우치와 네팔 현지 직조원단을 사용한 에코백을 판매하고 있어요. 네팔 현지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가방을 만들고 있어요. wf



에이프런 잡스 소개합니다~



같은 소재나 물건을 가지고 저마다 다양한 직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도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재미있는 직업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앞치마를 활용한 직업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의 앞치마 예찬을 들어보겠습니다.

글/취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아무 일 하지 않고 있다가도 앞치마를 두르면 무언가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치마를 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곤 해요. 얇은 소재의 연약한 물건 같지만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매우 실천적 도구가 앞치마 인 거 같아요”

음식으로 문화라는 브랜드 가치 판매하기



손님 맛을 준비와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죠

함현근(칠링키친 대표)_푸드트럭 운영

요리하는 사람한테는 앞치마가 일종의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마지막에 입는 것이 앞치마이기 때문에 앞치마를 착용한다는 것은 손님을 맞을 준비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서 막 만드는 것이 아니고 셰프의 정신으로 만드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 셰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리의 상징이기도 한 거 같아요.

내가 사용한 소중한 물건 반려동물에게 물려주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만능 옷이죠

유라(솔모연구소 대표)_반려동물 대상 가구제작

목공일과 페인팅을 하다 보면 앞치마는 작업복이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튀는 목재 잔해물을 막아주는 안전 용도이자 앞치마에 달린 주머니에 자나 연필 등을 넣어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도우미이기도 해요. 오늘은 점심에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비가 와서 우산 대신 쓰기도 했어요. 만능 옷이죠. 중학교 3학년 미술을 시작할 때부터 좋아하는 것을 할 때면 꼭 앞치마를 입었어요. 제 아이덴티티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삶의 흔적을 담아 만드는 공기를 온기가 그리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윤하나(공기핸디크래프트 대표)_그릇 제작 및 판매

매일 매일이 도전적인 일이라 너무 두렵지만 앞치마를 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곤 해요. 저에게는 매일 서는 출발선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앞치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앞치마를 달리 착용해요. 작업할 때 기분이 전환되는 느낌도 들지만 뭔가 지저분해지는 것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도 이 앞치마라고 할 수 있죠.

나의 공강 1시간을 모아 친구의 알바 10시간을 줄여주기



십시일밥의 활동을 잘 표현해 주는 상징이죠

김민주(십시일밥 자원봉사자)_교내 급식봉사활동

학교마다 급식 봉사를 하면서 앞치마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외식업은 아니지만, 식당에서 앞치마를 입는다는 것은 손님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앞치마'를 생각할 때, 요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오르지만 십시일밥의 활동 또한 잘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도구라고 생각해요. 앞치마를 통해 수혜 받으실 분들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됐다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wi](#)

'내일에서 on 편지' 친구 편 응답하라 1990! 나눔 동창회를 열다

코흘리개 시절 시골의 작은 중학교에서 구르고 뛰놀며 옛정을 나누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건장한 청년들로 성장했고 예쁜 아이들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추억들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논두렁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의 일꾼이 된 지금, '내일에서 on 편지(이하 내_편)'을 통해 우리와 같은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_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부 캠페인입니다.

기획 | 경영기획팀 김연수 책임매니저 글/정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학습목표 : 착하게 살자



떠든사람
이기중
강세영
이태영
전청식
백은하
김연수



“ 친구로 인해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죠. '내일에서 on 편지' 캠페인을 통해 아동, 청소년,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청년실업 같은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기중(부여에서 벼농사 짓는 농부)

부여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어요. 벼는 5월 말에 심어서 10월 말에 수확하기 때문에 지금은 심어놓은 벼를 관리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농사일은 생각 외로 손이 아주 많이 가요. '내_편'을 제안한 제 친구는 중학교 동창이고 벌써 20년 지기의 죽마고우예요. 13살에 만났으니까 20년 넘게 알고 지냈네요. 중학교 동창모임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어요. 결혼하고 외지생활을 한 순간 빼고는 계속 부여에 살았어요. 지리적으로 살기가 좋고 서울과 부산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이동이 용이한 곳이에요. 타지 사람들은 백제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요즘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_편'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농사를 지은 계기도 취업문제로 농사를 지으러 내려오게 된 거라서 앞으로도 이런 사회문제에 참여할 계획이에요.

아동,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강세영(부여에서 소농사, 벼농사 짓는 농부)

소 키우고 벼농사, 감자, 단무지 등을 재배하고 있어요. 모든 농업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소는 70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 부모님과 같이 일하고 있어요. 물론 일을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구요. 농사일 시작한 건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과업을 이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요. '내_편'을 제안한 제 친구는 중학교 동창이고 1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인연으로 지금까지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지금껏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웃음).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여에서 살았어요. 부여는 공기도 좋고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많고 밭 닿는 곳이 다 피서지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고 친구를 믿고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어요. '내_편' 캠페인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나눔을 요청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고 기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_편’ 캠페인에 앞으로 참여할 예정이에요

이태영(동부여농협 양송이배지센터)

농협 양송이배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양송이를 키울 수 있도록 벚짚으로 만든 초기재료인 블럭배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부여는 양송이가 특산품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업비를 위탁받아 퇴비를 만들고 실험실에서 연구 및 생산을 거쳐 출고 과정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내_편’을 제안한 제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3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이지요. 어릴 때 축구하며 같이 구르고 놀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동네에선 몇 안 되는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제 고향 부여는 양송이재배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벼농사,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별을 보기 힘든데 이곳은 쏟아질 정도로 별도 많고 범죄도 없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내_편’ 캠페인에 대한 취지는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고 이후 기회가 되면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힘을 보태드립니다

전청식(LG화학)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회 초반 26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취업을 했지만 경기 침체로 30살까지 이직을 4번이나 했어요. 평소 ‘나눔에 동참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내_편’을 제안했을 때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기부 동참을 ‘친구’라는 아는 인맥을 통해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고 함께 연결하며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조차도 기부라고 하면 망설여지게 사실이지만 주위의 늘어나는 기부 네트워크를 보면 뿌듯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내_편’ 캠페인을 통해 절망보다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청년들에게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취준생들에게 응원 한마디 건네고 싶네요.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친구의 나눔 활동 권유로 기부를 시작했어요

백운혁(시골에서 소농사, 벼농사 짓는 농부)

소농사, 벼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친구들은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하지만 저는 학교 졸업 후 부모님을 도와 바로 농사일에 뛰어들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면서 고향을 떠났지만 농사일을 하면서 고향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제겐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함께 농사짓는 친구가 서울에 있는 동창 친구가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요?”고 제안을 해왔고 그날 이후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_편’을 통해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친구들은 20~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로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해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면에서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이런 기부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의미있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없애는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김연수(‘내일에서 on 편지’ 기획자)

함께일하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내일에서 on 편지’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지금은 ‘내_편’ 키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누군가에게 나눔을 요청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고 기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의도로 기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눔을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많은 친구들이 저를 믿고 나눔에 동참해줬어요. 이렇게 우리는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눔이라는 연결고리로 뭉치게 되었고 더욱더 큰 우정을 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_편’ 캠페인에 참여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나눔에 동참하지 않으실래요? [w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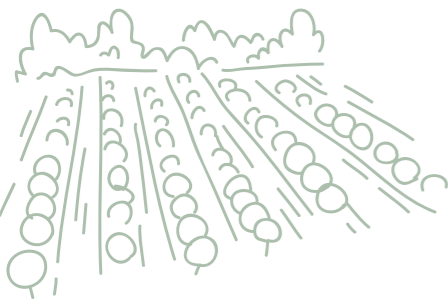


내일에서 on 편지

가족, 직장, 친구, 동일 직업 등 10명이 모여 내일을 밝히는 나눔 키트에 참여해 주세요. 어촌에서 해녀, 어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내_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과 함께 아래로 연락주세요. (사연 문의 : 02-330-0715)



내일에서 on 편지 QR코드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6기 공모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빈곤 근절을 위해 재단은 2017년 정기 공모사업을 통해 2018년 제6기 스마일투게더 파트너십 단체를 모집합니다. 개발도상국 아동빈곤 문제를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국내외 단체 및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총 5개 기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관은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응원 캠페인 UP TOGETHER 2차

함께일하는재단은 작년에 이어 취업으로 힘들어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응원캠페인 'UP TOGETHER'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한 청년이 청년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캠페인 컨셉으로 거리캠페인과 온라인캠페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진행되는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IT드림(DREAM) 사업 공모

재단은 삼성SDS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예비)사회적기업의 업무효율성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IT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증진을 위해 IT기기와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IT드림(DREAM)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그 셰어하우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함께일하는재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원을 받아 지방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지원을 위해 허그 셰어하우스 1호점 입주생 30명을 대상으로 주택지원 및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27일~8월 6일까지 총 3주에 걸쳐 취업진단 컨설팅과 이력서 및 자소서 첨삭지도, 모의면접 등을 진행했으며 진학 및 취업 준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돌봄사업 협약체결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후원으로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중사 자 중 시니어를 대상으로 직접지원비는 물론 간접지원비(교육비 지원, 복지여건 개선 등)를 지원함으로써 시니어 중사자들의 근로 동기를 고취시키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까지 430명의 시니어 중사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캠코 희망Replay,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

취업경쟁에 내몰린 대학생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준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가 9개월 간 사업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국자산관리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전국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취업캠프와 취업코칭을 통해 전문화된 컨설팅 교육, 임직원-대학생 멘토링, 우수자 취업보조금 지원 등 대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경제 10주년 기념 캠페인
카카오 같이가치 x 함께일하는재단

'#문화예술로 함께하기' 크라우드펀딩 진행



같이걸을까



몽클스토리



컬처앤유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대중(crowd)을 통해 자금조달(funding)을 하는 투자방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경제 10주년 기념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카카오 같이가치와 함께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단체들의 공익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차 크라우드펀딩은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이며 '#문화예술로 함께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소개된 4개 기관은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소아병동, 호스피스병동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공연(컬처앤유), 지적장애인 작가 미술활동 지원을 위한 작품 전시회(같이걸을까), 미혼모 대상 부모교육, 부모에게도 학교가 필요합니다(그로잉맘), 청소노동자, 퇴직 소방공무원 자서전 제작(몽클스토리)과 같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프로젝트가 카카오 같이가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응원 및 후원하고자 하는 많은 네티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직접 기부에 동참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 공유하거나 댓글만 달아도 카카오가 1건당 200원씩 기부를 해주기 때문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2차 크라우드펀딩은 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약 2천만 원의 모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일하는재단의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정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잉맘



Say Junior? Say Senior? Let's meet at SAY!

커뮤니티를 통한 젊은이와 시니어의 시너지

SAY는 'Seniors and Youth'의 줄임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니어와 젊은이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미션을 갖고 태어난 온라인 한국어 플랫폼입니다.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며 100세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에게 "20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보실래요"라고 여쭙보면 "정말 가슴 떨리고 벅차는 일이고 기회가 되면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신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석될 수도 있겠죠.

SAY는 2014년부터 이런 분들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삶의 경험과 지혜를 보고 미국 명문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1:1 화상 채팅으로 연결시켜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외국어를 배우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한국어 학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참여했던 외국의 학생들은 원어민인 SAY 튜터들과 이야기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튜터들은 한국 역사를 경험한 장본인으로서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수업 중 덩어리로 학생에게 들려주었고요.

이렇게 SAY는 2014년부터 1,000개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더욱 많은 시니어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사랑하는 분들은 SAY를 통해 한국어 튜터를 만나게 되고, 재능과 열정이 있는 시니어는 SAY를 통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젊음과 생기를 유지합니다.

SAY는 함께 일하는재단에서 지원하는 2017년 유한김벌리 소기업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 웹 플랫폼 개발과 시니어 튜터단을 양성하여 시니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소통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자신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로 문의주세요.